



임 호 기

한국전자산업진흥회 / 부품소재산업팀장

국내 디스플레이산업 수출입동향

1. 개요

아직 공식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한국전자산업진흥회가 관련세번 해당품목에 대한 관세청 통관실적과 주요업계 실적조사 등을 통해 집계한 결과, 지난 한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산업의 총 수출규모는 약 165억불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대비 35.8% 고성장을 이룬 것이다. 특히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단일품목으로 150억불 이상의 흑자를 기록, 휴대폰과 함께 최대의 효자품목으로 부상하였다. 참고로 디스플레이산업은 분류방식에 따라서 모듈외에 장비, 소재 등을 모두 포함하기도 하나 여기서는 평판디스플레이 즉 FPD와 음극선관 즉 CRT를 기준으로 삼았다. 물론 평판디스플레이 중에는 패널(또는 모듈이라고도 함)만을 포함하였고 CRT는 모니터를 포함하지 않은 음극선관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 디스플레이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불, %)

구 분	2002	2003	증가율
수 출	12,129	16,475	35.8%
수 입	700	1,460	108.6%
무역수지	11,429	15,015	31.4%

* 자료 : 관세청 통관실적과 업계조사를 토대로 전자산업진흥회 추정

수출에 비해 수입은 규모가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14억 6,000만불을 기록하였다.

수출 증가율은 108.6%로서 전년대비 약 2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수출이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은 첫째,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수요처인 컴퓨터용 모니터가 급속히 LCD로 대체되고 있고 노트북 PC의 수요도 큰 폭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음이 성장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아직 컴퓨터용 모니터의 수요에는 못 미치지만 PDP TV와 LCD TV도 증가

율 면에서는 약진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인 디지털 TV 방송 실시 확대 등으로 평판디스플레이를 채용한 TV수상기의 보급이 크게 늘고 기 때문이다. 또한 휴대폰의 컬러화와 듀얼LCD 채용 추세에 따라 소형 LCD시장 또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수요증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업계의 적극적인 투자가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LG필립스 LCD가 세계에서 최초로 5세대 라인을 투자해 적극적으로 나서자 삼성전자는 6세대 라인 생산규모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를 해왔고 이는 세계 설비투자 총액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LG전자, 삼성SDI 등도 PDP 생산 설비투자를 크게 늘린 점도 경쟁력 확대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기술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했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은 시제품 단계이긴 하나 PDP분야에서 LG전자가 지난해 중반에 71인치를 내놓은데 이어 하반기에 76인치를 선보였고, 삼성전자는 올 초 세계 최대 가전쇼인 CES에서 80인치를 출시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LCD분야에서도 삼성전자가 54인치에 이어 57인치를 잇달아 선보였고 LG전자는 23인치, 30인치 등 3종류의 LCD TV를 출시한데 이어 42인치 대형제품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2. 수출동향

평판디스플레이는 147억불로 전년대비 46.6% 성장하였다. 이는 전체 디스플레이의 수출비중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사실상 평판디스플레이가 수출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LCD는 평판디스플레이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TFT-LCD는 LCD중 88.6%를 점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체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약 64%로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수출에서의 절대적인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로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대비 50% 정도의 고속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아테네올림픽이라는 대형특수가 기다리고 있어 수출시장을 더욱 밝게 해주고 있다. 이는 LCD수출액이 약 200억불에 이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PDP 또한 대형 TV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생산 단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 수요가 크게 늘어 올해는 약 35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품목별 디스플레이 수출실적 (단위: 백만불, %)

구 분	2002	2003	증가율
디스플레이계	12,129	16,475	35.8
FPD	10,031	14,709	46.6
LCD			
TFT	6,610	10,500	58.9
TN/STN	992	1,350	36.1
PDP	331	1,093	230.2
기타	2,098	1,766	-15.8
CRT	2,098	1,766	-15.8

*자료 : 자료: CRT는 관세청 통과기준 FPD는 진흥회 추정

TN/STN방식의 LCD는 13억 5,000만불로 36.1% 성장하였으나 노트북, PC 정보기기에 이어 이동통신기기용 수요 등이 점차 TFT방식으로 바뀌면서 비중이 줄고 있는 추세이다.

PDP는 약 11억불로 230.2%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무엇보다 디지털 TV 수요증대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나 PDP는 디스플레이 수출에서의 비중이 6.6%에 불과하여 그 명성에 비해서는 아직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CRT는 17억 6,600만불 정도의 수출로 전년대비 15.8%의 감소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CRT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이 컬러TV와 컴퓨터용 모니터였던 80~90년대 가전 및 컴퓨터업체를 통해서 수출되는 로컬 방식 뿐 아니라 CRT자체로도 큰 금액비중을 차지해왔으나 2000년 들어서 불어 닥친 평판디스플레이 수요에 밀리면서 이제는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의 1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3. 수입동향 및 전망

지난 해 디스플레이 수입은 총 14억 6,000만불로 증가율은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이는 수출용 휴대폰에 채용되는 수입량의 비중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우리기업들의 소형 LCD 국산화율이 올라가고 있어 오히려 증가 추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품목별 디스플레이 수입동향 (단위: 백만불, %)

구 분	2002	2003	증가율
계	700	1,460	108.6
FPD	336	523	55.7
CRT	364	237	-34.9

*자료: 관세청 통관기준

4. 수출전망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올해로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대비 50% 정도의 고속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아테네올림픽이라는 대형특수가 기다리고 있어 수출시장을 더욱 밝게 해주고 있다. 이는 LCD 수출액이 약 200억불에 이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PDP 또한 대형 TV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생산 단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 수요가 크게 늘어 올해는 약 35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올해 디스플레이 수출의 총규모는 약 250억불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총 수출의 10%를 훨씬 상회하는 최대의 효자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조심스런 예측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CRT 또한 지속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올해에는 소폭이나마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대형 모니터업체들이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이미 LCD 모니터로 완전히 넘어갔지만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은 LCD 모니터 가격으로 인해 CRT 모니터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LCD는 패널 등의 수입이 여의치 않아 CRT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소니 등 일본기업들이 CRT 모니터 생산라인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보다 커질 것으로 보여 CRT 또한 수출 증가율이 전년대비 약 30%정도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